

역학		번호: J - B - 9			
제 목	국문	Zung's Self Rating Depression Scale을 이용한 충주지역의 우울증 조사			
	영문	Prevalence of Depression Using Zung's Self Rating Depression Scale in Chungju-city			
저 자 및 소 속	국문	김형수, 이건세, 장성훈, 박수경, 주영랑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Hyeong Su Kim, Kun Sei Lee, Soung Hoon Chang, Sue Kyoung Park, Young Rang Ju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kuk University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p> <p>우울증은 불안증과 더불어 일차의료영역에서 가장 흔히 진단되는 정서장애로, 일상적인 활동의 장애를 유발하고, 자살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질환이다. 따라서 다른 기질적인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진단을 통한 조기치료가 요구되는 질환이다. 우울증의 유병율은 일차의료에서 성인환자의 5-9%이며, 지역사회에서의 유병율은 약 2배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Zung의 SDS를 이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우울증 유병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p> <p>2. 연구방법</p> <p>충주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 475명을 대상으로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가기입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중 설문결과가 불충분한 27명을 제외한 4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인구학적 정보로 연령, 성, 학력, 직업, 결혼, 우울증 치료유무와 정신과 질환 치료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우울증에 대한 조사는 Zung's Self Rating Depression Scale(SDS)을 이용하였다. SDS는 모두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의 긍정적인 항목과 10개의 부정적인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5분정도가 소요되었다.</p> <p>3. 연구결과</p> <p>연구대상자는 448명(남성 120명, 여성 328명)으로 연령분포는 40대가 134명(30.2%)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97명(21.8%), 50대 91명(20.5%), 20대 55명(12.4%), 60대 50명(11.3%), 70대 17명(3.8%)이었다. SDS 설문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0.83로 매우 높았다.</p> <p>연구대상자의 평균 SDS 점수는 48.6점이었다. 점수에 따른 우울증의 정도를 분류하면, 정상범위는 238명(53.1%), 우울증은 210명(46.9%)이었다. 우울증을 세분하면 극도로 심각한 우울증은 18명(4.0%), 중등도에서 고도의 우울증은 71명(15.8%), 최소한의 약한 우울증은 121명(27.0%)이었다. 정상범위군과 우울증군간의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 결혼상태, 직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과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현재 치료중인 경우에서(29명) 우울증군으로 해당하는 경우는 76.9%(20명)로 과거 치료력이 없는 경우보다는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군에서(40명) 우울증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80%(32명)으로 정신과 치료력이 없는 군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p>4. 연구고찰</p> <p>본 연구에서 Zung의 SDS를 이용하여 파악된 충주지역 주민의 우울증 유병률은 46.9%이었으며, 이</p>					

중 당장 치료가 요구되는 수준의 우울증 유병률은 19.8%이었다. 우울증은 부정적 사고, 에너지의 상실, 욕구상실, 집중력 장애, 수면장애 등의 대인관계의 능력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울증과 관련된 요인으로 동거인, 거주장소, 은퇴기간, 신체적 건강상태 등이 파악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우울증 치료력과 정신과질환 치료력이 현재의 우울상태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